

# “장흥, 세계로 뻗는 K-문학대표 도시로 조성”

김영록 지사 장흥서 정책비전투어 역사문화 거점 구축 등 비전 제시도 지역민, 수산식품가공설비 지원요청 “국고 확보 등 필요사업 적극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장흥군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케이(K)-문학 대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날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지사,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의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을 비롯해 지역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한강 작가가 지난달 10일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문화예술관광을 균형 발전 동력으로 삼고 있는 장흥에 기회가 찾아왔다”며 “한승원 문학산책길을 부녀 산책길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5억 원과 한승원·이승우·송기숙 작가 생가 복원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1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장흥군이 2008년 전국 유일 문학관광 기행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K-문학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작가 생가 복원 사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일극체제가 가장 큰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남 출생수당 지급, 청년만원 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장흥군이 전남도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장흥군 미래 비전 발표에서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대한민국 대표 관광·문학도시 장흥’을 주제로 △창의적 문화융합의 장 △옛 장흥교도소·해동사 중심 역사문화 거점 △장흥 생태관광벨트 구축 △대한민국 대표 축제도시 조성 △국토남부 그린바이오 메카 도약 △장흥 특산물 미래 성장 기반 확보 △남북 교통망 단계적 확보 등 장흥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 현안 토론에서 지역민들은 수산식품 가공기계 설비 지원 확대,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정환 장흥통합의료병원장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전남도, 장흥군, 원광대학교, 국립나주병원이 협약해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치유센터를 운영, 우수 성과로 인정받아 대통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며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약계층, 소방공무원, 경찰, 해경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가 필요한 도민이 곳곳에 있는 만큼 마음건

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임표 장흥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은 “세계에서 이름을 알린 무산김을 생산하고 있지만 물김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다변화하는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품 개발과 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 설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적극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남이 부산을 제치고 수산가공식품 생산액 전국 1위로 성장했다”며 “국고 확보 활동을 비롯, 수산식품 개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광주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집중 관리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관리기간에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을 평상시보다 20% 증량해 1일 최대 540t 처리하고 반입시간을 2시간 연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흙이 많이 묻어 있거나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한 30l 이하 종량제봉투 배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스티

커는 행정복지센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배부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기동처리반을 운영, 수거 상황을 점검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배추·무와 텃밭류는 염분을 제거하고 잘게 절단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부피가 큰 배추 겉잎과 채소는 흙과 이물질 제거 후 스티커를 부착해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광주여자대학교를 찾아 ‘청춘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주제로 대학생들과 대화를 위해 입장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최선국 도의원, “전남 마을기업 3곳 중 1곳 휴·폐업”

332개소 중 123개소 운영 중단 환수물품 처리내역 2건 불과 등 전남도 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

전남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의원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마을기업 총 332개소 중 123개소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32개소 중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123개소, 행안부형 마을기업은 209개소에 달한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마을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마을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은 물론 존폐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전남도 내 마을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은 마을기업의 내실있는 운영관리와 질적 성장보다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전남도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도가 마을기업의 운영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숫자만 부풀려 실적을 홍보하는 데 그치



최선국 도의원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고 있다”며 “특히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휴·폐업된 기업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환수 조치도 미흡하다”며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물품 처리 내역은 단 2건에 불과해 기초적인 자료 파악과 실태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마을기업이 단순한 성과 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이 어려운 마을기업은 지정 취소하고, 내실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 “내 삶’ 살 수 있게 사회·제도적 지원 최선”

강 시장, 광주여대생들과 현장대화

“시장님, 취업 문제로 힘든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세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청춘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강 시장은 이날 여러 문제로 힘들어 토로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나를 믿고 오를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지역 대학과 소통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대화에는 광주여자대학교 대표 특성화 학과인 항공

서비스학과, 미용과학부, 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들이 주로 참석했다.

이날 학생들은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시장님에게 청춘의 의미란?”, “청년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한다면?” 등을 질문했다.

강 시장은 “성장을 위해 강경한 마디를 만드는 대나무처럼 여러분의 청년시절 마디를 만드는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저의 20대 지금의 20대는 너무 달라 조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저의 96년생 딸과 99년생 아들도 취업 고민을 하고 있어 공감어 된다. 조심스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 전남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수도’ 도약 다짐

에너지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남도가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 수도로서의 도약을 다짐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1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제2회 전남도 에너지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의 날은 지난해 개정된 ‘전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전남도는 다양한 주체가 협

력할 기회를 제공하고, 에너지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주최,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에너지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운봉태 나주시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대행, 김유진 전남에너지산업협회장,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전남 에너지기업 대표, 관계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에너지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강 시장은 이어 얼마전 화제가 됐던 가수 이효리씨의 국민대 졸업식 축사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슬로건인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의미를 함께 설명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이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며 “여러분도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여러분이 ‘내 마음’이 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사회·제도적 지원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한 학생은 “오늘 이야기들을 잘 새기겠다. 광주여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한 4년제 여대이다. 여대의 강점을 살리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취업 등에 광주시의 지원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1부 개최식은 에너지희망나눔, 식전공연, 전남에너지산업협회 발표, 에너지산업 유공자 시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에너지희망나눔 행사에서는 지역 에너지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은 250여 쌀 포대를 나주시에 전달,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무상 제공했다. 시상에서는 전남도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희복 ㈜미래이앤아이 대표와 홍성호 ㈜호그린에어 대표가 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나주시장상, 한국전력공사 사장상, 녹색에너지연구원장상 등 총 17명이 표창을 받았다. 2부 행사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대표가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오지현 기자